

경제 재개 美 일부 주 코로나19 환자 증가

사우스다코타·아칸소·메인주
환자 수 가장 많이 늘어나
미주리주 등은 확진자 줄어

경제 재개에 나선 미국 주(州) 가운데 일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최근 1주일간(5월 7~13일)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사우스다코타·아칸소·메인주에서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지난 7일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환자 수가 7명 이하 수준이었으나 13일에는 약 15명으로 늘며 134% 증가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따라서 검사 확대도 환자 수 증가에 한몫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얼마나 기여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자택 대피령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다.

아칸소주에서는 같은 기간 10만명당 코로나19 환자가 2명에서 3명으로 50% 늘었다. 이 주는 지난 4일부터 부분적인 경제 재개동에 들어갔고 최근에는 식당이 매장에서 손님을 받는 것도 허용했다. 메인주도 이 기간 10만명당 코로나19 환자가 2.1명에서 2.8명으로 증가했다. 메인주는 이달 말까지 자택 대피령을 시행 중이지만

일부 사업체·점포는 이달 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반면 뉴저지·미주리·아이다호주는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주로 분류됐다. 뉴저지주는 가장 엄격한 자택 대피령을 가장 오래 시행하고 있는 주 중 한 곳이고, 미주리주와 아이다호주는 각각 지난 4일, 지난 1일 경제 재개동에 들어갔다. 역시 조기 재개에 나선 주 중 한 곳인 텍사스주에서는 16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사상 최대인 1801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734명은 포터카운티와 랜들카운티에 있는 유흥·가공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검사를 한 결과이지만 텍사스주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 재개동에 앞장선 곳이자 가장 문을

많이 연 주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주는 재개동 이후 3주가 지났지만 환자 수에는 큰 변동이 없는 편이다. 최근 1주일 새 동향을 보면 10만명당 코로나19 환자가 7명에서 6명으로 외려 감소했다. 컬럼비아대학 전염병학자 모린 밀러는 조지아주에서 상황이 은밀히 악화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며 완화된 봉쇄령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뒤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러는 또 조지아주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주는 지난달 24일부터 체육관과 피트니스센터, 볼링장, 미용실, 이발소, 마사지사 등의 영업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2〉 방남

방남(方臘, 1048~1121)은 현 절강성 항주시 춘안에 해당하는 목주 청계현 출신이다. 북송 휘종 말년 난을 일으켜 사실상 북송 왕조의 멸망을 초래했다.

방남은 절강 청계 지방에서 옷을 만드는 칠원(漆園)을 경영했다. 북송의 마지막 황제 휘종은 강남의 예술문화, 진기한 물품을 사랑했다. 휘종의 사치를 충족키 위해 항주 등에 공정의 기물을 제조하는 조작국(造作局)을 설치했다. 조작국은 방남의 칠원에서 강제로 옷을 징발했다. 방남은 깍채사마(峽菜司)로 채식주의자였으며 마귀를 섬기는 교단의 수령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지하로 잠적한 마니교도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 교단은 유희를 먹지않

방남의 난은 북송 황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첫째로 난의 중심지인 절강, 강소는 북송의 주요 재원 조달지였다. 강북은 식량과 재화를 상당 부분 강남 지방에 의존했는데 난이 확대되면서 재정에 커다란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지역이 납세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면세와 구휼 조치가 불가피해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둘째로 진압에 동원된 15만 대군은 북상을 목적으로 한 군대였는데 부득이 남하시킨 것이다. 여진과 결맹해 요나라에 빼앗긴 연은 16주를 회복하기 위한 북방 작전에 동원하기 위한 병력을 부득이 이끌고 남하하였다. 이에 따라 여진과의 교섭은 없던 일이 되었다. 개봉에 들어온 여진의 외교사절은 1년 가까이 세월만 보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여진은 요나라와 송에 대한 군사작전에 들

휘종 말년에 난 일으켜 북송 멸망 앞당겨

고 해와 달을 섬기고 평등사상을 신봉했다. 인생은 고통이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고통을 구제하는 일로 이를 도인(度人)이라고 한다. 1120년 10월 목주 청계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소주 출신의 주면은 화석강(花石綱)이라는 어용선단을 만들어 서화나 사치성 물품 등을 운하를 통해 개봉으로 실어 날랐다. 강남의 진귀한 돌, 나무, 기이한 암석 등을 운송하는데 많은 백성이 동원되어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1120년 12월 반란군은 안휘성의 흡주와 선주 등을 점령했고 항주 공략에 성공했다. 종교집단에 일반 백성이 가담해 세가 커진 전형적인 민란이었다. 휘종도 반란의 배경에 조작국과 화석강의 전횡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폐지했다. 한편으로 토벌군을 조성해 난 진압에 나섰다. 항주 함락으로 기세가 오른 방남은 스스로 성공(聖公)으로 자칭하고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환관 영추밀원사 동관을 총사령관으로 15만 대군을 징집해 방남 토벌에 나섰다. 토벌군은 항주를 회복한 후 2월 선주와 흡주를 탈환하고 4월 목주 청계현을 공격해 방남을 포로로 잡았다. 방남의 난이 완전히 평정된 것은 1122년 4월이었다. 방남의 난은 6주 52현에 걸쳐 450여일간 진행되었으나 부정을 일삼은 관리와 부호를 다수 처형했다.

여겼고 결국 수년후 북송은 수도 개봉이 함락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방남의 난은 100만 이상이 반군에 참여할 정도로 대규모 난이었다. 봉기 개시 열흘만에 10만여명이 모이는 등 혁명의 열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군사 작전의 경험이 없고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해 정예의 관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압군은 부역한 백성 300여 만명을 가혹히 처벌했다. 민심이 크게 이반되었다. 관료적 위계질서와 군주에 대한 존왕을 강조하는 정주학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다. 금나라의 개봉 공격에 이강 등이 강력히 저항하고 호국의 기치를 높이던 것은 이러한 지배이념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방남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북송 왕조에 대항한 반란이 뒤를 이었다. 1126년 엄주 수안현에서 일어난 예종경의 난, 1130년 호남성 정주의 종상이 일으킨 난 등이 대표적이다. 종상은 스스로를 초왕으로 칭하고 천전이라는 연호를 채택했다. 나라의 법은 귀천과 빈부를 엄격히 구분하지만 자신이 법을 시행하면 귀천을 평등히 하고 빈부를 균등케 하겠다는 평등사상을 전면내세웠다. 충의민병(忠義民兵)이라 불리는 반군은 관군을 괴롭혔다. 이러한 일련의 난으로 조정은 통치력을 상실했고 북방 군사, 외교작전의 실패로 왕조는 몰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중국 지린성 수란시에서 17일 한 의료 요원이 주민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지린시 일부, 코로나19 고위험지역 추가 지정

확진자 3명 발생한 평만구
수란시 이어 봉쇄식 관리

중국 지린성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확진자 다수가 나온 지린(吉林)시 평만(豐滿)구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8일 지린성 코로나19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하루 신규 확진자 3명이 나왔던 지린시 평만구가 17일 중위험 지역에서 고위험 지역으로 상향됐다. 이번 '고위험' 상향조치는 지린성 수란(舒蘭)시에 이은 것

이며, 지린시 당국은 이미 전체 시에 대해 '고위험'에 준해 방역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국은 평만구에 대해 주거구역 봉쇄식 관리 및 감염 여부 검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주거구역 내 외부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가구당 1명만 매일 지정된 시간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증명서를 받아야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지린시 밖으로 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관광·영화관·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및 단체행사는 모두 중단됐고, 음식점은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다. 슈퍼마켓을 제외한 백화점, 가전·가구매장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17일 기준 최근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지린성 내 확진자 34명 중 수란시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지린성 평만구가 1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밖에 지린시 환잉(船營)구와 창이(昌珉)구가 각각 2명, 1명씩이다. 한편 지린성 위생건강위원회는 "16일 신규확진자 3명이 늘었다. 확인결과 (이와 별개로) 한 명은 확진됐지만, 고령에 따른 심혈관 등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당국은 이 환자를 코로나19 확진·사망자 숫자에 포함한 도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